

분식회계와 이사의 책임



분식회계의 개념

가끔 뉴스나 신문에서 대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해 수사를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분식회계란 기업이 재무제표와 같은 회계 자료를 작성하면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고 부채를 적게 계상함으로써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익은 과대포장하고 손실은 줄여서 기재함으로써 부실한 기업을 마치 튼튼한 기업인 것처럼 치장하는 것인데, 몇 해 전 모 그룹이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에 대해 분식회계를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제품을 제조하여 팔지 않으면서도 허위로 매출을 꾸미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방법, 재고자산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재고량을 늘여 기재하는 방법 등이 대표적인 분식회계의 유형이다.

분식회계의 원인

분식회계를 하는 원인으로는 우선 우리나라의 경영환경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기업들은 차입을 통해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 매출액이 크고 순이익이 높으면 우량기업으로 인정되어 차입자금에 대한 이자(금리)가 낮아진다. 이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차입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시도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자금을 대출할 때 기업의 변제능력을 평가하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이나 지도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할 때 기업의 재무건전성이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허술하게 하여 기업의 분식회계가 용이해지는 것이다.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

회사의 대표자나 이사, 감사 등이 회사의 회계와 관련한 장부를 부실하게 기재하면 상법 제635조 제1항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회사의 회계업무 담당자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사가 분식회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상법 제399조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주주와 같은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상법 제401조에 의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회사의 이사가 충분한 정보에 기하여 사사로이 이해관계 없이 회사의 이익에 합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회사경영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면 예외적으로 그 판단이 적절하지 못하여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라도 그리

한 판단을 한 이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경영판단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였다면 그것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면책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회사 대표이사가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당해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 결정에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따라서 기업체 임직원 등이 대규모의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기업체 감사가 대규모로 분식된 재무제표의 감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해 금융기관이 기업체에 여신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재무제표에 나타난 기업체의 재무상태 이외의 요소들(상환자원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채권의 보전방법, 거래실적 및 전망, 시장조사결과 등)이 함께 고려된다 하더라도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면 여신제공 여부의 판단이 달라졌으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 판단에 있어 다른 여러 요소보다 재무제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맺음말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환경에 따라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변수와 마주치기 마련이고, 그러다보면 어쩔 수 없이 분식회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 분식회계는 기업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을 기만하는 잘못된 관행이며, 이것이 적발될 경우 기업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기업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관계 기관은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대한 감시나 처벌 못지않게 재무제표를 성실히 정확하게 작성하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이 분식회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분식회계란?

기업이 재정 상태나 경영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